



여성그룹 마마무가 16일 새 미니앨범 '레드 문'을 내고 돌아왔다. '레드 문'은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문별의 컬러인 빨간색에 달(Moon)을 합친 제목이다. 여름 시즌을 겨냥해 레게풍의 '너나 해'를 타이틀곡으로 앞세웠다. 제멋대로 굴고 이기적인 연인에게 당당하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다. 자유분방한 매력으로 음악팬들을 사로잡아온 마마무의 '걸크러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마마무는 16일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새 미니앨범 '레드 문'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무대를 공개했다. 새 앨범에는 '너나 해'를 비롯해 '잠이라도 자지' 등 다양한 장르의 6곡이 수록됐다. 확인은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이전의 마마무를 뛰어넘는 마마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안방극장까지 접수 나선 '대세 배우' 김태리

흥행이면 흥행, 연기면 연기... '갯태리' 전성시대

(God+김태리)

'1987' '리틀 포레스트' 큰 인기 '미스터 션샤인' 첫 드라마 도전 외모·연기력·카리스마 등 호평 충무로 캐스팅 1순위 주가 폭등



김태리

배우 김태리가 스크린을 넘어 안방극장까지 점령하고 있다. 가뜰이나 몸값 높은 스타인 김태리는 첫 드라마 출연작인 tvN '미스터 션샤인'의 인기와 맞물려 그 가치가 더욱 치솟고 있다. 덕분에 영화를 넘어 드라마 제작사까지 김태리 캐스팅 작업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김태리는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로 데뷔해 영화에만 참여해왔기에 그의

진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안방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이병헌 유연석 김민정 변요한을 비롯해 김의성 조우진 등 주·조연을 망라하고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포진했지만 단연 눈길을 붙잡는 주역은 김태리다.

김태리는 이미 스크린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아가씨'를 통해 주요 영화상 신인상을 휩쓸었고, 지난해 영화 '1987'과 올해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의 연이은 흥행으로 이름값을 높였다. 영화마다 각기 다른 캐릭터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매번 매

력적인 연기로 두터운 신뢰를 얻어왔다. 연기력에는 늘 호평이 따랐고, 그 분위기는 이번 '미스터 션샤인'으로도 이어진다.

충무로를 이끄는 여배우로 급성장한 김태리가 드라마에 출연한 이유는 '미스터 션샤인'의 김은숙 작가, 이응복 PD를 향한 믿음 때문이다. 김태리는 "드라마는 대본이 미리 나오지 않는 만큼 작가와 감독님을 향한 믿음, 두 분이 만든 전작들로 증명된 재미를 믿었다"고 밝혔다.

극중 김태리는 명문 사대부 가문의 영애이지만, 공자의 말씀을 받아쓰는 일보다 세상사에 더 관심을 둔 인물이다. 복면을 쓰고 친일파 처단에 직접 나서서 강인한 여인이다.

김태리는 남다른 포스와 강단 있는 모습을 넣어 모든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발음, 그러면서도 다채로운 감정을 담아내는

연기와 고전적인 외모까지,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김태리를 발굴한 박찬욱 감독이 "자연스러운 외모와 솔직한 태도, 상투적이지 않은 연기"라고 내린 평가가, 스크린을 넘어 안방에서도 통한 셈이다.

김태리의 몸값 상승은 예견된 일이다. 지금까지 참여한 3편의 영화로 빠진다는 성공을 이끈 김태리가 이제 대중성 짙은 드라마에서도 인정받으면서 그를 캐스팅하려는 제작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런 가운데 여성 캐릭터가 중심인 영화들은 김태리를 최우선에 두고 캐스팅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최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화 기획이 추진되는 상황. 일제강점기 여러 인물이 극화되는 가운데 김태리가 단연 1순위 주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내 마음에 작품하나

정세운-영화 '트루먼쇼'



안일하게 살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막상 볼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가 곰씹어보면 두고두고 충격을 안겨주는 영화가 있다. 가수 정세운에게 1998년 개봉한 집 캐리 주연의 영화 '트루먼 쇼'가 그랬다. 자신이 태어나고 1년 후 개봉한 영화를, 성인이 된 후 "명작 중 명작이라는 주위 추천"으로 보게 됐다.

정세운은 제목이 주는 여감과 집 캐리를 떠올리며 "웃음과 재미를 기대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공허함과 많은 생각이 밀려왔고, 여러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트루먼 쇼'는 평범한 샐러리맨 트루먼 버뱅크가 어느 날 자기 인생 전체가 매일 24시간 TV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대한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간다는 이야기다.

영화에서 트루먼이 어느 날 통제될 수 없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면서 난생처음 혼란에 빠진 것처럼, 정세운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또 트루먼이 끝내 진정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세상을 탈출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새로운 도전과 자유를 향해 나가는 모습에 정세운도 희열을 느꼈다.

그는 "트루먼은 고통 없고 여유로운 환경에 만족하며 잘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처한 환경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다. 내 환경에 만족하고 있는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스스로 편하기 위해 방관하는 건 아닌지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안일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꿰뚫던 꿈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라며 감상해볼 것을 권했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형주·고형일 기자

디크런치·블랙맘바·공원소녀...신인그룹의 진격

원어스·원위·에이티즈·네이처 등 하반기 대거 데뷔...신인그룹 대전

이 정도면 신인그룹의 '역습'이라 불릴 만하다. 뜨거운 여름 '핫'한 걸그룹이 잇따라 컴백해 '대전'을 펼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폐기로 중무장한 신인 그룹들이 대거 데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생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 만큼 성공한 아이돌 그룹들의 '후배'들이 잇따라 나선다.

9인조 디크런치가 8월6일 데뷔한다.

디크런치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제작자가 새롭게 론칭하는 남성그룹이다. 다이어몬드와 크런치를 합친 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체인 다이어몬드를 깰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와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뜻을 지녔다. 추구하는 음악은 힙합이고, 9명 멤버들이 데뷔음반부터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

마마무를 배출한 RBW도 남성그룹 원어스(ONEUS)와 아이돌 밴드 원위(ONEWE) 등 2팀을 데뷔시킨다. 원어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진정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의 팀이

다. 웹툰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이진희, 여환웅과 또 다른 오디션프로그램 '믹스나인'에 출연했던 이진민과 레이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이루어졌다. 밴드로 나서는 원위는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하나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가 이름에 담겼다.

그룹 블랙비의 동생 격인 에이티즈도 정식 데뷔를 앞두고 20일 방송을 시작하는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작전명 ATEEZ'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사한다.

걸그룹 면모도 다양하다. '믹스나인'에서 뛰어난 춤 솜씨로 시선을 끌었던 용재가 포함된 블랙맘바가 6인조로 하반기 데뷔를 앞두고 있다. 코브라의 일종인 블랙맘바를 그룹 이름으로 내세운 만큼 이들은

걸그룹의 귀여움보다는 카리스마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

이와 정반대 콘셉트로 중무장한 네이처는 그룹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청순함을 강조한 9인조 그룹이다. 이들은 다음달 정식 데뷔해 아홉 멤버들의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JYP엔터테인먼트도 걸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프로듀스 101' 우승자인 전소미를 주축으로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작곡가 김형석이 이끄는 키위미디어그룹은 9월 7인조 글로벌 걸그룹 공원소녀를 선보인다. 이에 앞서 8월2일부터 엠넷 'GOT YA! 공원소녀'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을 먼저 만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장근석, 사회복지연구소 입교

배우 장근석(31)이 16일 충북 보은군 사회복지연구소에 입교했다. 앞서 2011년 한 대학병원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후 병무청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장근석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4박5일간 사회복지기초교육을 받는다. 4급 사회복지원은 일반적인 신병교육 대신 소양교육을 받고 퇴소한다. 장근석의 입교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내외 팬들이 몰렸다. 이날 장근석은 입교 시간인 오후 1시를 약 5분 앞두고 연수센터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비공개로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근석의 소집해제는 2020년 7월이다.

'라이프 온 마스' 촬영장 조폭 난동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촬영장에서 조직폭력배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 A(51)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14일 오전 0시55분께 부산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촬영 현장에 들어가 배우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을 제지하던 매니저와 관계자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흥분한 상태로 촬영현장 출입문 유리에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리는 등 난동을 부려 드라마 촬영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하는 등 촬영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YB, 폴란드 최대 뮤직 축제 초청

록밴드 YB가 폴란드 최대 뮤직페스티벌인 '폴&록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 받았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폴&록 페스티벌'은 폴란드 우드스타크 페스티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약 30개 밴드가 출연하고 63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IRA, 마이슬로비츠, 애시드 드링커스, 레스드레스 등의 폴란드 밴드를 비롯해 주다스 프리스트, 아크 이너미, 유미엣 식스 등 세계적인 밴드도 초청된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펼쳐지는 '폴&록 페스티벌'에 YB는 한국의 대표 록밴드로서 공식 초청을 받아 둘째 날인 8월3일 세컨드 스테이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유재석, FNC와 재계약 "신의 확인"

개그맨 유재석이 16일 FNC엔터테인먼트(FNC)와 재계약했다. 약 5년간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해 온 유재석은 2015년 7월 FNC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FNC는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유재석은 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을 공유해왔고, 그동안 쌓은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의가 재계약의 바탕이 됐다.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의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유재석을 주축으로 FNC는 김용만 송은이 정형돈 노홍철 문세운 최성민 이국주 조우종 문지애 등 막강 예능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MBC, 월드컵 결승전 시청률 1위

MBC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결승전 중계방송에서 '우승컵'을 안았다. 지상파 3사는 16일 0시부터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결승전을 각각 중계 방송했다. 시청률조사회사 TNMS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안정환 해설위원이 중계한 MBC가 9.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이영표 해설위원의 KBS 5.1%, 박지성 해설위원의 SBS 5.1% 순이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출전 경기가 아닌, 외국 간 경기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경기는 단연 결승전이다. 6월19일 오후 9시부터 방송한 일본 대 콜롬비아 H조 예선전 시청률이 20.2% (MBC 7.5%·KBS 2TV 6.4%·SBS TV 6.3%)로 2위를 차지했다.